



이 문서는 제215회 총회(2003)에서 채택된 정책 성명서를 의역한 것이다.

요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로서, 또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과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장로교인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선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일로 이해한다. 우리는 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중심을 두고 성령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능력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본질적 하나됨을 인식하며, 우리는 협력의 원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다.

협력의 실천은 우리의 연결적인 교회 전체를 이끈다. 이는 교인, 직분자, 목회자를 개인적으로 인도한다. 또한 회중, 노회, 대회, 총회 사역부처들, 관련기관으로서의 우리를 집합적으로 인도한다.

협력을 통해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몇 가지 원칙을 준수한다:

- 은혜와 감사의 나눔;
- 상호성과 상호 의존성;
- 인정과 존중;
- 열린 대화와 투명성;
- 자원의 공유

연결성

우리는 **하나의 교단 가족**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한다. 우리는 교회, 노회, 대회, 총회 및 관련 기관의 연결 시스템을 통해 장로교인으로서 이를 인정한다. **우리가 모이는 하나의 식탁은 하나님의 식탁이며, 우리가 부름 받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선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일로 이해한다. 우리는 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중점을 두고 성령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능력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선교의 '장소', '방법', '담당자'는 하나님의 주도권, 주권적 행동, 구속의 은혜에 달려 있다. 우리가 전하도록 부름받은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삶과 사역의 본질과 형태를 구성한다.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듦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과 인간을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또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있어 더 고귀한 목표는 없다."

—규례서 (F-1.01)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선포와 전도² 세상에서 긍휼을 베푸는 일³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화해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랑의 통치를 확립하는 일,⁴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보살핌에서 이루어진다⁵

"지금의 세대에서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 피조물 보호 사역, 구제 사역, 화해의 사역은 하나님의 통치의 표시이며, 생명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의 희망이다. 그 희망은 교회 사역의 성공이나 교회 예배의 효율성에 기인하지 않는다. 이는 교회가 사역하며 예배할 때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나타난다."⁶

협력 관계

장로교 신자로서, 우리는 개혁 전통을 그리스도의 큰 몸인 교회의 한 부분으로 인정한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다른 공동체들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서 똑같이 독특하고 가치 있는 자리를 차지한다. 인간의 한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본질적 하나됨을 인식하며, 우리는 협력의 원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다. 우리는 협력을 통해 선교를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가 지역, 국가, 세계 차원에서 얼마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넓어진다고 믿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셔서, 그의 사랑의 계명을 따르고,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요 15:12-17). 바울과 디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상호 봉사하는 동반자가 된다 (고후 8:16-24).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우리는 모든 자부심, 힘, 죄, 특권을 비우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빌 2:5-11). 우리의 서로 연결된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협력을 통해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일은 상호 격려, 상호 변화, 상호 봉사, 상호 갱신을 위한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준다.

협력의 실천은 우리의 연결적인 교회 전체를 이끈다. 이는 교인, 직분자, 목회자를 개인적으로 인도한다. 또한 회중, 노회, 대회, 총회 사역과 유관기관으로서의 우리를 집합적으로 인도한다. 서로를 위한 기도와 겸손, 그리고 상호 개방성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적 증거를 개발한다.

협력을 통한 사역은 선교가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음으로 가장 훌륭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선교에서의 협력은 두 개 이상의 조직이 공동의 과제나 목표에 헌신하기로 동의하고, 서로 주고받으며 기도로 둘러싸여 하나님의 일이 더욱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협력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하나의 교회가 이해할 수 있거나 실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근본적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폭을 알고 있는 우리는, 서로 다른 패턴을 가진 여러 형태의 협력이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다른 교회, 일반 단체 또는 다른 신앙 공동체와의 공동된 목표를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결국 공동의 선을 위한 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한다.

협력의 원칙

협력을 통해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몇 가지 원칙을 준수한다:

1. 은혜와 감사를 함께함

1. 규례서 (W-7.2000)
2. Ibid.
3. 규례서 (W-7.3000)

4. 규례서 (W-7.4000)
5. 규례서 (W-7.5000)
6. 규례서 (W-7.6000)

협력 관계는 개인적, 집단적 실패를 고백하고, 불의한 권력에 공모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공동 착취의 역사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화해의 희생을 공동으로 기념하며, 모든 은혜와 갱신의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 인간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부정하는 세력에 맞설 용기가 있는가?
-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눌 수 있나?
- 협력 공동체가 감사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와 쇄신을 기뻐하고 있는가?

2. 상호성과 상호의존성

협력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이며,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부유함이나 "경험"을 이유로 다른 이들을 무시하지 않는 관계를 의미한다.

- 각 협력체들은 자립적이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가?
- 모든 협력체들은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행동할 여지가 있는가?
- 권력과 의존의 불건전한 역학 관계를 넘어 상호 봉사와 상호 갱신의 새로운 역학 관계에 대해 개방적인가?

3. 인정과 존중

협력 관계는 모든 협력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협력체를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도록 요구한다.

- 각 협력체가 주장하는 정체성을 인정하는가?
- 모든 협력체의 고유한 상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가?
- 모든 협력체의 능력과 필요를 확인하고 존중하는가?
- 문화적 차이를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방식으로 중재하고 있는가?

4. 열린 대화와 투명성

협력관계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공동의 분별을 추구하고, 성경이 예언자적 도전의 기반이 되며, 현지의 주도권이 존중되고, 차이를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묵상하며, 모든 파트너가 자신의 활동과 지원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열린 대화를 요구한다.

- 선교 분별력 및 선교 활동에 대한 현지 주도권이 있는가?
-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의 실패를 사랑으로 대면하고 세상의 권력과 지배 체제에 예언자적으로 도전하도록 우리를 교육하는가?
-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모든 협력체와 선교 활동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하는가?

5. 자원의 공유

협력 관계는 인적, 문화적, 재정적, 영적 유형의 자원, 특히 친근한 대화와 신앙을 변화시키는 삶의 경험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원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 협력체는 서로를 섬기고 영감을 주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비판하는가?
- 인적, 문화적, 재정적, 정신적 자원을 포함한 모든 자원의 교환에 상호 책임을 지고 있는가?
- 신뢰 관계에서 협력체는 쌍방향 관계를 넘어 열린 선교 네트워크와 끊임없이 확장되는 선교 관계망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이자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과 공동 상속자인 우리는 이러한 질문과 씨름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제한하는 성령의 미묘한 능력을 의지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공동의 찬양에 굳게 서서, 우리의 협력 관계 실천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참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에 더욱 온전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협력 관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세계 선교부

선교 참여를 위한 준비(

800-728-7228 내선 5612 또는 ellen.sherby@pcusa.org)는 코디네이터 엘렌 서비에게 문의하세요.